Venture in, 벤처人

Funny Venture ◎◎ 공영DBM 조영제 과장의 미니홈피

'친절한 영제씨'의 유쾌한 이야기가 있는 곳

어느 미니홈피나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 마련이지만 CRM(고객관리시스템) 전문업체 '공영DBM'에 근무하고 있는 조영제 과장의 미니홈피(www.cyworld.com/bigtooth)는 정말 특이하다. 처음 미니홈피를 방문하면 우선 깔끔하게 정리된 메뉴를 보고 놀라게 된다. 그리고 사진첩이나 게시판에서 느껴지는 철철 넘치는 에너지에 다시 한번 놀란다. 레크레이션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만큼 끼가 다분한 조과장의 면모를 확실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취미생활은 아마추어 락 밴드 활동이다. 3년 전에 친구들과 결성한 3인조 밴드 'They…'에서 보컬과 드럼을 맡고 있단다.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의 공연을 연 적이 있는 숨은 실력자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락콘서트가 아니라 한편의 개그콘서트를 보는 듯했다지만 34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삶을 즐긴다는 사실이 부럽기만 하다.

그가 미니홈피를 만든 계기 또한 유쾌하기 그지없다.

"옛 애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미니홈피를 알게 됐어요. 그 이후 다른 누군가도 '조영제'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찾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2004년 7월 역사적인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 그의 미니홈피 모토는 '사람'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을 비롯한 'Band They…', '나와 국내 측근들', '나와 직장 동료들' 등의 메뉴로 꾸며진 사진첩에는 그를 중심으로 그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특히 그의 사진들로 꾸며져 있는 '천상천하유아독존'에서는 절대 웃지 않는 표정으로 엽기적인 포즈를 취하며 찍은 '설정컷'의 진수를 찾아볼 수도 있다.

게시판 메뉴에는 향후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문화가산책', '연애성공학', 'Career 및 자기계발', '매너, 에티켓' 등 유용한 게시물들을 올려놓았다.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것을 보면 '친절한 영제씨'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의 친절함은 곧 그가 미니홈피를 운영해 나가는 노하우이기도 하다. 수시로 접속해서 방문객들이 남긴 글에 실시간에 가까운 댓글을 달아준다. 그리고 방문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의 미니홈피에 가서 흔적을 남겨주는 일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물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신선도 유지는 필수이다.

조영제 과장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사랑방'에 비유한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관계 못지않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관계 또한 그에게는 소중한 인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신의 지인들뿐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창고' 같은 미니홈피를 만들고 싶다고. 그의 미니홈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시 친절한 영제씨….'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중이시거나, 통통 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 김지원(●zmail@em●al.c●m, 02-515-3681)